



⑭ 곡성 갯잎 재배 한무용씨

# 퇴비로 땅심 키워 10년째 전국서 알아주는 고품질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 1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한무용(65)·조추실(55)부부가 고품질의 '목사동 갯잎'을 수확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6천600㎡ 비닐하우스서 年 2억원 고소득 지하수 이용 수막 하우스 기름값 걱정 없애 올해부터 조정수·야콘 재배 '작목 다변화'

“농사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 등을 고려해 작목 선택 등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오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 1구 보성강 주변에 자리한 한무용(65)·조추실(55)부부의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갯잎 수확이 한창이었다. 주민 5~6명이 한씨 부부와 잘 익은 갯잎을 찾아 따느라 열심이었다.

6천600㎡ 비닐하우스 안은 진한 갯잎 향으로 가득했다. 질푸른 빛깔의 갯잎이지만, 잎 뒤쪽은 진한 보랏빛 색갈 띠고 있었다.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까닭이다. 그래서 한씨 부부가 재배하고 있는 갯잎은 전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가격도 다른 지역의 갯잎보다 비싸지만, 수확하는 즉시 모두 판매되고 있다. 이들의 갯잎은 곡성군 공동브랜드인 ‘그리나리’를 사용해 ‘그리나리 향긋한 갯잎’으로 출하돼 전국 농산물 공판장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씨는 “진주와 광양 등지에서도 갯잎이 나오고 있지만, 기온 차이가 많이 나 비교적 익이 얇았지만 곡성 목사동 갯잎은 기온차 때문에 익이 두껍고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인기 비결을 설명했다.

이들은 24년째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부부지만, 갯잎 재배로만 매년 2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1년에 대략 40t의 갯잎을 수확하고 있다. 한씨 부부가 갯잎 재배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올해로 10년째다.

축산업과 함께 토란과 우영을 재배했던 이들 부부는 연중 소득을 올리는 갯잎 재배 농가가 부러워 갯잎 재배에 뛰어들었다.

조씨는 “봄에 파종해 가을에 수확하는 토란과 우영은 1년에 단 한 번 소득을 올리지만, 갯잎은 평균 1주일에 한 번씩 수확해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고 갯잎 재배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1년을 공들였지만, 그 해 가격이 좋지 못하면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등 억울하기도 해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 부부가 재배하고 있는 갯잎은 잎을 따고 나면 새순이 또 피어나는 ‘잎 들깨’다. 그래서 연중 수확이 가능하다.

봄·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확하고, 겨울에는 10일에 한 번씩 수확하고 있다. 갯잎 재배를 처음 시작은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한씨 부부는 갯잎 재배에 남들보다 많은 노력과 땀을 쏟아부었다.

고품질 갯잎을 얻을 수 있는 데는 한씨 부부가 만들어 사용하는 퇴비가 큰 효과가 있었다. 축산업을 하는 덕에 50마리의 한우 축사에 왕겨와 톱밥을 깔아 여기에서 나온 퇴비를 15일 만에 한 번씩 굴작기로 갈아 엮는 작업을 벌여왔다. 공기를 순환시켜야 발효가 잘 돼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씨 부부의 시설하우스 내 토질은 아직도 기름지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10년 전에 지은 하우스도 큰 도움이 됐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시설이어서 지난해 폭증하는 기름값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15℃를 유지하는 지하수를 2중으로 덮은 비닐 위에 뿌려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목사동 갯잎 작목반

공동브랜드 ‘그리나리’ 출하  
작년 21억 1천만원어치 판매

곡성군 목사동면은 일교차가 크고 양질의 사양토로 갯잎 재배에 적합한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갯잎(사진)은 곡성군 공동브랜드인 ‘그리나리’를 사용해 ‘그리나리 향긋한 갯잎’으로 출하되며 향기가 독특하고 오랫동안 싱싱한 게 특징이다.

식당 주인들도 식탁에 아껴서 내놓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석곡농협 목사동 갯잎 작목반은 지난해 568t의

조씨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내가 키우는 작목을 지식처럼 잘 가꾸는 것”이라며 “사시사철, 매시간 항상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씨 부부의 소득원은 단지 갯잎뿐만이 아니다. 생산 다변화를 꾀한 것이 지금의 부농을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부부는 갯잎 농사 외에도 축산업과 함께 1만여㎡에서는 마와 토란, 우영을 재배하고 있다. 그래서 한씨 부부는 스스로 ‘농업 그룹’이라고 부른다.

올해는 한씨 부부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섰다. 작목 변화에 나선 것이다.

24년간 지어왔던 토란과 우영 농사를 올해 모두 마감했다.

대신 조정수와 야콘을 시작할 계획이다. 야콘은 미리 시장조사를 끝마쳤다. 조씨가 주변 친구들에게 야콘을 선물해보고 상품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것이다.

이들이 24년 만에 또 다른 작목 변화를 꾀한 것은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씨는 “10년 전에는 100여 명을 모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명 모으기도 힘들다”면서 “이 때문에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농사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소의 대비 일손이 많은 작목은 농촌에서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농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고 시장 흐름도 파악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갯잎을 생산, 총2억 1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해 농가당 평균 3천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갯잎만으로 한해 3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반원들도 있다. 봄부터 가을철까지는 노지에서, 겨울철에는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연중출하체계도 갖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b>메가박스</b> 구.련원약국사거리 ☎에메1544-0600</p> <p>1관 그림자살인 (154) 최고등급 2관 분노의 질주 (154) 3관 푸시 (154)/기프트 (154) 4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실종 (184) 5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4) 6관 쇼퍼홀릭 (124) 7관 카오스 (154)/더리더 (184) 8관 신부들의 전쟁 (124) 9관 그림자살인 (154)</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왕도시립 영화사립 • 에메: www.joybc.com / 1588-7941</p> <p><b>콜롬버스 시네마</b>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의화관앞편)</p> <p>1관 더리더 (184)/슬럼독 밀리어네어 (154) 2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더리더 (184) 3관 그림자살인 (154) 4관 그림자살인 (154) 5관 쇼퍼홀릭 (124)/카오스 (154) 6관 신부들의 전쟁 (124) 7관 기프트 (154)/분노의 질주 (154) 8관 카오스 (154)/푸시 (154) 9관 실종 (184) 10관 분노의 질주 (154)</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상무점) / 2시간 (해남점) • 팝콘 상영중 1588-7941 왕도시립 영화사립</p>	<p>고객사랑 고객감독 • www.hamcinema.co.kr / 1588-9120</p> <p><b>하미 시네마</b> 전대후용 하이프스팩스 ☎ 267-7777</p> <p>1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2관 분노의 질주 (154) 3관 작전 (154) 4관 워낭소리 (전제) 5관 분노의 질주 (154) 6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7관 카오스 (154) 8관 푸시 (154) 9관 신부들의 전쟁 (124) 10관 실종 (184)</p> <p>• 5000대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05 매일 실야 • 이프유 주차장 &amp; OK 카슈어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9-5757 • 하미 볼링장 282-0825 • 하미 골프장 281-5000 • 하미 당구장</p>	<p>북쪽있는 영화사립 • www.dnusa.co.kr / 1544-0070</p> <p><b>씨너스 전대</b> 북구보리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신부들의 전쟁 (124) 2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3관 실종 (184) 4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4) 5관 분노의 질주 (154) 6관 푸시 (154) / 더리더 (184) 7관 워낭소리 (전제) / 변에프터리딩 (184) 8관 그림자살인 (154)</p> <p>•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프유 주차장 할인혜택 • 씨너스북적 사무나 (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새로운 기쁨 • www.primcinema.com/www.jelcinema.co.kr</p> <p><b>제일 시네마</b>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그림자살인 (154) 2관 실종 (184) 3관 신부들의 전쟁 (124) 4관 분노의 질주 (154) 5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4) 6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더리더 (184)</p> <p>• 무료주차 3시간 (상무점) / 2시간 (해남점) • 팝콘 상영중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